

## 바다목장 사업과 충남 수산의 미래

명정구 |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 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은 그동안 남획으로 인하여 자원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이며 따라서 감소한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일정한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원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공어초시설사업과 수산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으로 대별되는 자원 조성 사업은 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종묘 생산기술이 주로 양식용 어종에 국한되어있고 방류 장소의 선정이라든지 방류규모, 방류 대상종의 크기, 방류 후 생존율 등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방류효과 조사 역시 최근 들어 일부해역의 특정 어종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효과 조사가 없는 실정이다.

바다목장사업은 어업형인 경우 "자연생태계의 조성을 포함하여 자원의 방류로부터 어획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시스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의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자원조성을 통한 자원이용·관리방법과 비교하여 보면 자연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어업생산 및 어업경영을 영속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장화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1) 환경수용력평가 및 환경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개발, 2) 기능성어초, 인조 및 자연해조장, 음향급이기, 해류차단장치, 환경관측브이의 개발 및 설치, 3) 지속 가능한 높은 생산력 유지를 위한 자원량 파악 및 방류, 관리 기술의 개발, 4) 경제성 분석 및 새로운 어장 이용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사업추진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해양목장화를 위한 기반연구'를 실시하고 '98년부터 9개년 계획으로 경남 통영 해역에 시범적으로 바다 목장화 연구개발 사업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전남다도해 바다목장, 2004년부터는 동서제주에 각 1개소씩을 추가 지정하여 총 사업기간인 12년간(1998년~2010년) 전국 5개소에 총 사업비 158,900백만원을 들여 시범바다목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해 태안바다목장은 서해안 4개 후보지 중 1순위로 선정됨에 따라 작년부터 '갯벌형 바다목장' 모델 개발을 위하여 2010년까지 총 485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바다목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충남 수산 발전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환경 보존과 자원 증대를 통한 연안복원이라는 미래를 위한 꿈을 실현하게 된다.